

다래끼약

요약

다래끼약은 눈꺼풀의 분비샘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다래끼는 크게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다래끼와 분비샘 중 하나인 마이봄샘 입구가 막혀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생긴 콩다래끼로 구분된다. 퀴놀론계 항균제, 스테로이드제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설파메톡사졸 등의 점안액, 안연고, 경구약 등으로 치료한다.

외국어 표기

hordeolum treatment(영어)

동의어: sty treatment, stye treatment, drug for hordeolum, drug for sty, drug for stye

유의어·관련어: 겉다래끼치료제, treatment of external hordeolum, 속다래끼치료제, treatment of inner hordeolum, 맥립종치료제, treatment of sty, 산립종치료제, treatment of chalazia

다래끼

눈꺼풀에는 여러 가지 분비샘이 있는데, 속눈썹의 뿌리 부분부터 눈꺼풀 안쪽까지 위치한 몰샘, 짜이스샘, 마이봄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눈물이 증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름 성분을 만들고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다래끼는 이러한 눈꺼풀의 분비샘에 생긴 염증인데, 눈꺼풀의 표면에 위치한 몰샘과 짜이스샘에 생긴 급성 화농성 염증을 겉다래끼라고 하며, 보통 다래끼라고 하면 겉다래끼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눈꺼풀 안쪽 깊숙이

위치한 마이봄샘에 생긴 금성 화농성 염증을 속다래끼라고 하며, 맥립종이라고도 한다. 다래끼의 주 원인은 포도상구균의 감염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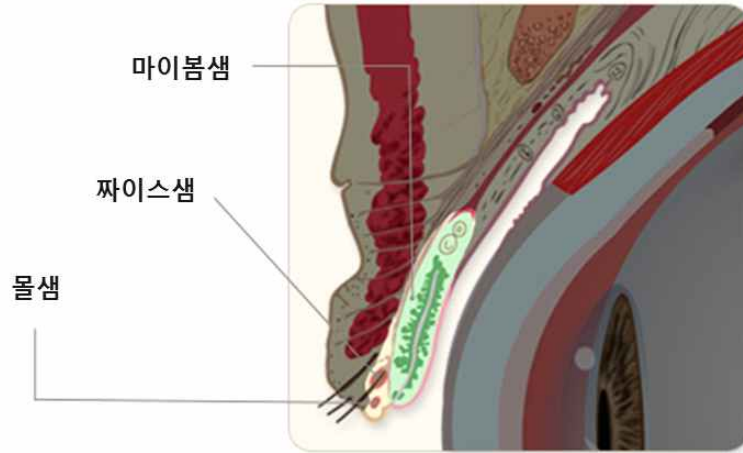


그림 1. 눈물샘의 구성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이에 반해 콩다래끼라고 불리는 산립종은 마이봄샘 입구가 막혀 배출되지 못한 기름 성분과 괴사* 조직이 쌓여 생긴 만성 육아종+성 염증을 말한다.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말한 겉다래끼, 속다래끼와 구별되며, 증상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므로 구분해 주어야 한다.

겉다래끼의 증상은 눈꺼풀 표면이 약간 빨갛게 붓고 가렵다가, 심하게 부어 오르며 통증이 생긴다. 보통 4~7일이 지나면 단단해지고 통증도 감소하고, 이 때쯤 고름이 생기면서 결국은 피부로 배출된다. 속다래끼는 눈꺼풀 깊숙이 위치한 결막에 노란 농양점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콩다래끼는 눈꺼풀에 피부 아래에 팽알 크기의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지만, 발적이나 통증 같은 염증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콩다래끼가 발생한 부위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 감염이 되면 속다래끼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눈다래끼는 그냥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지만 빠른 치료를 위해 온찜질도 도움이 되며, 항생제 안약 및 안연고 적용, 경구 항생제 복용 등을 할 수 있다. 항생제의 경우, 경구 항생제보다 안약이나 안연고 형태의 항생제가 병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1차적으로 쓰인다. 농이 생겼으나 저절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개하여 배농시킨다.

콩다래끼는 크기가 작고 불편함을 못느낀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지만,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저절로 낫지는 않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항염증 성분이 포함된 안약 및 안연고 점안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다.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개 후 내용물을 긁어내는 시술을 하거나, 스테로이드를 소량 주사하는 시술도 치료 효과가 있다.

* 괴사(壞死, necrosis): 세포 또는 살아 있는 조직이 예정보다 빠르게 죽는 것을 말한다.

† 육아종(肉芽腫, granuloma): 결절상의 육아 조직으로,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덩어리진 것으로, 증식성 변화에 삼출염을 섞은 만성 염증 반응이다.

약리작용

- 퀴놀론계 항균제는 세균의 DNA 복제와 전사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여 세균의 핵산 합성을 억제한다. 현재 사용되는 퀴놀론계 항균제는 대부분 플루오로퀴놀론 항균제이며,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에 항균 작용을 가진다. 오픈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과 같은 2세대 퀴놀론계 항균제가 쓰이지만, 다래끼의 원인균인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약하다는 점, 내성균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레보플록사신은 3세대 퀴놀론계 항균제로,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력이 높고, 생체 내 반감기*가 길어져 경구용으로는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다.

- 토브라마이신과 같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균작용을 나타낸다.

- 세프록사딘으로 대표되는 세파계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한다.

- 덱사메타손은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이다. 항염증 및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전구물질인 아라키돈산의 생성을 막거나 백혈구 등 면역관련 세포의 능력을 낮추어 염증을 완화시키고, 림프계의 활성을 감소시켜 면역반응을 억제한다.

- 설파메톡사졸은 설포닐아미드 항균제로서, 세균의 핵산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 작용을 한다. 단독이나 경구제로 쓰이지는 않고, 복합 외용 점안액으로 다래끼에 사용한다.

* 반감기(半減期, half-time): 약물의 양이 처음의 절반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 부신피질호르몬제: 부신피질호르몬은 부신(신장의 위쪽에 있는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코르티코스

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하는데, 지방·단백질의 대사, 면역반응 조절, 염증반응 조절, 그리고 염분·수분 평형의 조절을 담당한다.

용법

다래끼약의 용법은 종류와 제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아래의 대표적인 용법 이외의 기타 상세한 용법은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록사신은 경구 복용 시 성인 통상 1일 300 mg ~ 600 mg을 2~3회 나누어 복용한다. 점안액이나 안연고의 제형으로는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내지 도포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시플로플록사신은 경구 복용 시 성인 통상 1일 2회, 1회 250 mg ~ 500 mg을 보통 식후 2시간 후(식간)에 복용한다.
- 토브라마이신은 점안액 형태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감염의 경우, 4시간마다 감염부위에 1~2 방울 씩 점안한다. 중증 감염의 경우,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매 시간 2방울씩 점적하고, 점차 감량 중단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텍사메타손 점안액의 제형은 1일 3~4회 1회 1~2방울 점안한다. 중증인 경우에는 1시간마다 1~2방울 점안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감량한다.
- 세프록사딘은 경구 복용 시 성인 1회 250 mg을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 설파메톡사졸은 글리시리진산디칼륨, 설파메톡사졸나트륨, 수용성아줄렌, 타우린 등의 혼합 성분의 점안액 형태로 1회 1~3방울, 1일 3~6회 점안한다.

안약 사용법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누워서 눈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엄지와 검지로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잡아 당겨 점안

할 공간을 만든다. 용기의 끝부분이 눈꺼풀이나 눈가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눈꺼풀 속에 지시된 양을 넣는다. 흡수를 돕기 위해 점안액의 경우 30초~1분 정도 눈과 코 사이의 눈물샘으로 약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고, 점안용 겔제나 안연고의 경우 1~2분간 눈을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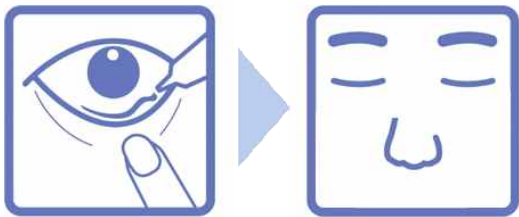


그림 2. 점안용 겔제 및 안연고 투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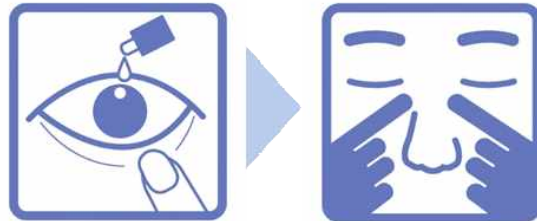


그림 3. 점안액 투여 방법

부작용

다래끼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의 종류, 발생빈도,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다래끼약의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 퀴놀론계 항생제의 경우 드물게 구역, 사지냉감, 호흡곤란, 심혈관계 허탈, 의식소실, 혈관 부종, 결막충혈, 피부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 토브라마이신의 경우 눈꺼풀의 가려움 및 부종, 발적, 홍반성 결막염, 일시적인 눈의 화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 덱사메타손 안과용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안압 상승, 녹내장 또는 백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투여 후 눈의 불편함, 이물감, 자극감, 시야흐림, 각막염,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세프록사딘의 경우, 드물게 쇼크(심한 혈압 저하 상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불쾌감, 구내이상감, 천명, 어지러움, 변의, 이명, 발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 설파메톡사졸 포함 점안액의 투여에 의해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주의사항

다래끼약의 특성 상 점안액이 많으며, 다음의 다래끼 치료 점안액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점안액의 경우,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점안액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곰팡이균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혼탁 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외에 주의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하도록 한다.